

2019년 9월 10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업종별 차별화 장세 속 혼조 마감

### 소프트웨어, 제약 바이오, 카드 하락 V s. 금융주, 소매, 에너지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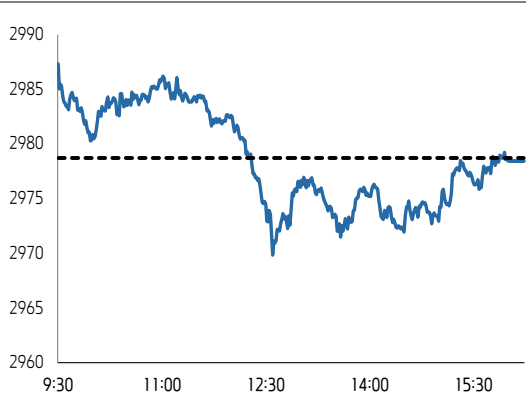
#### 나스닥, 소프트웨어 및 바이오주가 하락 주도

미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속에 상승 출발. 그러나 연초대비 상승률이 컸던 소프트웨어 회사들 위주로 매물이 급격하게 유입되며 기술주 부진으로 하락 전환. 반면, 낙폭이 컸던 에너지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국채금리 상승에 힘입어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는 등 업종별 차별화 장세속 보험권 혼조 마감(다우 +0.14%, 나스닥 -0.19%, S&P500 -0.01%, 러셀 2000 +1.27%)

미 증시는 새로운 이슈가 부각되기 보다는 개별 업종별 등락이 엇갈린 차별화 장세가 특징. 올해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 소프트웨어 주식들 중 일부가 밸류에이션 재평가 속 급락. 올해 IPO 이후 두배 이상 상승했던 사이버 보안 회사인 크라우드스트라이크(-11.69%)가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쟁 심화 우려가 부각되며 9 월 들어 매물 출회되며 급락. 이런 가운데 클라우드 플랫폼 회사인 패스틀리(-13.47%), 데이터관리 소프트웨어 회사인 알터릭스(-15.20%),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회사인 메달리안(-16.65%) 등 클라우드 관련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경쟁 심화와 밸류 재평가 이슈로 급락.

한편, 관련 기업들은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 속 빠른 수익 증가를 기반으로 높은 밸류를 받아왔던 기업들. 그리고 대 중국 노출이 크지 않아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될 때 대안으로 인정되며 급등 했었음. 그런데 최근 미-중 무역협상 관련 스몰딜 합의 기대가 높아지자 지난 주 이후 매물이 급격하게 유입되며 하락세를 이어왔음. 반면, JP 모건(+2.48%)을 비롯한 금융주의 경우는 최근 10 년물 국채금리가 1.45%를 하회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1.64%를 상회하자 강세를 보임. 더불어 코노코필립스(+2.50%)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가 사우디의 생산량 감축 기대에 힘입어 상승 했으며, 배당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유입된 점도 우호적. 이렇듯 미 증시는 업종별 개별 이슈로 차별화가 특징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19.55	+0.52	홍콩항셱	26,681.40	-0.04
KOSDAQ	625.77	-0.85	영국	7,235.81	-0.64
DOW	26,835.51	+0.14	독일	12,226.10	+0.28
NASDAQ	8,087.44	-0.19	프랑스	5,588.95	-0.27
S&P 500	2,978.43	-0.01	스페인	9,010.60	+0.23
상하이종합	3,024.74	+0.84	그리스	858.80	-1.22
일본	21,318.42	+0.56	이탈리아	21,989.73	+0.1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소프트웨어 업종 급락

올해 IPO 이후 두배 이상 상승했던 사이버 보안 회사인 클라우드스트라이크(-11.69%)가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쟁 심화 우려가 부각되며 9월 들어 매출 출회되며 급락세를 이어갔다. 패스트리(-13.47%), 알터릭스(-15.20%), 메달리안(-16.65%) 등 올해 상장 되었던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동반 하락 했다. 더불어 인튜이트(-4.13%), 세일즈포스(-1.01%)는 물론 베리스크(-2.66%), 플랫폼코어(-3.99%) 등 소프트웨어 서비스 종목들도 하락했다.

반면, JP모건(+2.48%), BOA(+3.25%), 씨티그룹(+4.27%)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상승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캐터필라(+3.71%), 3M(+1.22%) 등 산업재와 GM(+2.06%), 포드(+2.14%) 등 자동차 업종, 노드스트롬(+5.47%), L브랜드(+6.94%), 갭(+6.52%) 등 의류 업종, 콜스(+6.53%), 메이시스(+5.13%) 등 백화점 업종은 물론, 애플(+0.43%), 마이크론(+0.33%), 인텔(+1.32%) 등 기술주 일부는 미-중 무역협상 기대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였다. 코노코필립스(+2.50%), EOG리소스(+4.66%), 솔룸베르거(+5.94%), 할리버튼(+4.50%) 등 에너지 관련주는 국제유가 강세에 힘입어 상승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5.63%	대형 가치주 ETF(IVE)	+0.86%
에너지섹터 ETF(OIH)	+6.32%	중형 가치주 ETF(IWS)	+1.02%
소매업체 ETF(XRT)	+3.46%	소형 가치주 ETF(IWN)	+2.26%
금융섹터 ETF(XLF)	+1.53%	대형 성장주 ETF(VUG)	-0.70%
기술섹터 ETF(XLK)	-0.75%	중형 성장주 ETF(IWP)	-1.28%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65%	소형 성장주 ETF(IWO)	+0.32%
인터넷업체 ETF(FDN)	-0.60%	배당주 ETF(DVY)	+1.01%
리츠업체 ETF(XLRE)	-0.75%	신흥국 고배당 ETF(DEM)	+0.14%
주택건설업체 ETF(XHB)	+0.90%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36%
바이오섹터 ETF(IBB)	-0.40%	미국 국채 ETF(IEF)	-0.62%
헬스케어 ETF(XLV)	-0.92%	하이일드 ETF(JNK)	+0.11%
곡물 ETF(DBA)	0.00%	물가연동채 ETF(TIP)	-0.51%
반도체 ETF(SMH)	+0.38%	Long/short ETF(BTAL)	-1.6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41.27	+1.85%	+4.54%	+1.22%
소재	355.58	-0.50%	+0.37%	-1.68%
산업재	649.50	+0.28%	+2.08%	+2.37%
경기소비재	967.99	+0.30%	+2.93%	+3.75%
필수소비재	626.83	-0.27%	+0.89%	+2.92%
헬스케어	1,044.07	-0.92%	-0.26%	-1.23%
금융	460.99	+1.54%	+3.44%	+2.46%
IT	1,416.49	-0.72%	+1.67%	+3.03%
커뮤니케이션	170.20	+0.22%	+2.17%	+2.57%
유틸리티	315.12	-0.62%	-0.27%	+2.22%
부동산	243.75	-0.87%	+0.54%	+2.3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외국인 선물 동향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0.69% MSCI 신흥 지수 ETF 는 0.32%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이 1,190 계약 순매수 한 가운데 0.25pt 상승한 267.9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91.8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가 개별 업종별 차별화가 확연한 가운데 혼조 마감 했다. 특히 올해 상장되면서 두배 이상 급등 했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밸류 재평가 속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한 점이 특징이다. 이 종목들은 대 중국 매출이 크지 않아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 대한 대안으로 손꼽혔던 업종이었으나, 무역협상 기대가 높아지자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한편, 금융주, 소매유통, 자동차, 산업재, 에너지 등은 강세를 보였다. 금융주의 경우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되는 등 안정을 보인데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 외 업종의 경우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기술 이전 등 무역 문제의 해법과 관련한 이행 조치에 대해 개념적인 합의를 가지고 있다” 라고 주장한 데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일부 언론에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와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방안을 교환하는 방식도 제안되었다는 보도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듯 미 증시에서의 업종별 차별화의 근본 원인은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다만, 선물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있어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 변화를 보일 수 있어 관련 수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소비자 신용 증가

7 월 미국 소비자 신용이 전월 대비 233 억 달러 증가 했다. 전년 대비로는 6.8% 증가했다. 특히 소비와 관련이 깊은 리볼빙 신용이 11.2% 급증해 최근 소비 증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사우디 에너지 장관 교체에 힘입어 상승

국제유가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데 이어 사우디 에너지 장관 교체에 힘입어 상승했다. 특히 이번 신임 에너지 장관의 경우 사우디 4 재 왕자이자 감산을 지지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투자심리에 우호적인 영향을 줬다.

달러화는 유로화 및 파운드화 강세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ECB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일부에서 예상보다 덜 비둘기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조기 총선 관련 표결을 앞두고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부각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한편, 엔화는 미-중 무역협상 기대가 유입되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자 달러 약세폭은 제한되었다.

국채금리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유입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므누신 재무장관이 “기술 이전 등 무역 문제의 해법과 관련한 이행 조치에 대해 개념적인 합의를 가지고 있다” 라고 주장한 점이 상승 요인 이었다. 더불어 일부 언론에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와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방안을 교환하는 방식도 제안되었다는 보도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장기물의 상승폭이 커 장단기 금리차는 확대되었다.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 약화로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미-중 무역협상 기대에도 불구하고 혼조 마감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84%, 철근도 1.42%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7.85	+2.35	+4.99	Dollar Index	98.333	-0.06	-0.59
브렌트유	62.59	+1.71	+6.70	EUR/USD	1.1046	+0.15	+0.69
금	1,511.10	-0.29	-1.20	USD/JPY	107.24	+0.30	+0.94
은	18.167	+0.26	-0.95	GBP/USD	1.2341	+0.47	+2.28
알루미늄	1,799.00	+0.45	+2.86	USD/CHF	0.9922	+0.48	+0.15
전기동	5,815.00	-0.31	+3.47	AUD/USD	0.6863	+0.25	+2.19
아연	2,310.00	-0.77	+2.94	USD/CAD	1.3166	-0.05	-1.20
옥수수	354.25	-0.35	-4.19	USD/BRL	4.1019	+0.98	-2.05
밀	474.50	+2.32	+2.59	USD/CNH	7.1172	+0.15	-1.07
대두	857.75	0.00	-1.29	USD/KRW	1193.00	-0.33	-1.47
커피	98.25	+1.24	+1.45	USD/KRW NDF1M	1191.85	+0.01	-1.63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637	+7.67	+14.08	스페인	0.215	+4.50	+9.20
한국	1.355	-2.50	+1.00	포르투갈	0.239	+5.10	+11.10
일본	-0.251	-1.40	+1.50	그리스	1.591	+1.30	-0.70
독일	-0.585	+5.30	+11.70	이탈리아	0.941	+6.70	-2.30